

The LEET BIBLE

2026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BACKGROUND KNOWLEDGE

LEET 배경지식, 한 권으로 끝



FINAL ROUND

제목	The LEET BIBLE 배경지식 한 권으로 끝
발행일	2025년 5월 19일 초판 1쇄
Version	v1.01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정찬빈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59,800원
ISBN	979-11-992339-6-6(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들어가며

The LEET BIBLE의 집필 방향

The LEET BIBLE 초판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귀중한 의견과 제안들은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 덕분에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명 방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니다.

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배경지식, 한 권으로 끝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이제 Final Round를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은 LEET 준비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LEET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이 본 교재를 보신다면, 최신 기출문제를 바로 다루어보시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같은 것은 잘 이해하지만, Principle 등 더 앞단으로 돌아가서 LEET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향을 학습하신 뒤 본 교재를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와는 다른 변수들이 추가됩니다. 실제 시험 시간의 제한이라는 변수, 낯선 환경에서 높은 긴장감과 제약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변수,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변수 등이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변수 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게끔 **각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 접근방법 등 전체적인 시험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 또한 제대로 수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단순히 문제의 해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LEET문제를 접했을 때 과연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즉, 실전 연습으로 Full Set로 문제를 풀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배우면서 “시험장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행하는 것” 단계를 연습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문제 풀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부터 각 문제를 학습 이후 혼자 정리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등까지 폭넓게 커버합니다.

마치 LEET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마음으로 본 교재를 학습하시어, 앞선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 훈련했던 LEET의 기초를 마음껏 발휘해 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여러분만의 LEET 접근법을 다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LEET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EET 성 적은 신이 내린다는 자조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수험생의 도전 의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통념입니 다. The LEET BIBLE은 이러한 막연한 속설을 넘어, 수험생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이 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해 드렸던 방법론을 본 교재에서 다루는 최신 기출문제에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LEET 점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다 른 교재에서도 강조드렸듯 LEET는 지식형 시험이 아닌 적성형 시험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만약 본 교재로 최신 기출문제 풀 세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특정 유형, 특정 제시문에서 즉각적 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지점을 앞선 교재로 돌아가 보충하시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값진 도전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법조인으로 서의 꿈을 향한 여정에 본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CHAPTER

01

LEET 배경지식 개괄



The
LEET
BIBLE

“

The LEET BIBLE에서는
LEET에서 배경지식이
고득점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출제진들이 필수교양으로
생각하는 영역의 지식들은
살펴보고 탐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1 장

LEET에서 배경지식 학습의 의의

The LEET BIBLE

1 LEET 출제 경향 속 '배경지식'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The LEET BIBLE 시리즈를 통해 쌓아온 LEET 학습의 노하우와 전략을 집대성하여, 수험생 여러분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로서의 새로운 해설서를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The LEET BIBLE 시리즈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Final Round는 사실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LEET 학습에 필요한 모든 사고과정을 담고자 하려는 시도입니다.

(1) LEET가 요구하는 본질

LEET(법학적성시험)은 이름 그대로, 단순한 지식량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LEET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제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처음 본 정보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습득방식을 갖추었는지, 이를 토대로 논리적 사고를 전개하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즉 정보처리방식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는 기존의 수능이나 공무원시험과 같은 '선택형 지식형 시험'과 LEET를 구별하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보를 외워서 끄집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LEET는 "기존 지식 기반 시험"이 아니라, "정보 처리 기반 시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2) 배경지식 없이도 풀리는 문제들의 실제 사례

그렇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배경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오히려 LEET 문제들은 배경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것을 전제로 문제를 구성하는 시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018학년도 추리논증 22번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제시문 자체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주어져 있다.

배경지식을 몰라도, 제시문을 정확히 읽고 문장 간 관계를 파악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관계의 유무 확인과 관계의 실행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 제시문에 따르면 ~는 어떻게 되는가?", "다음 중 제시문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등으로 구성되며, 암기된 지식이 아닌 제시문 내 함수의 실행을 요구합니다.

- 실제 배경지식이 오히려 오류를 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존 지식에 기대어 문제를 풀려다 보면, 제시문이 제공하는 정보와 충돌하여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LEET의 근본적인 평가 목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배경지식'이 아니라 '자료 독해 및 추론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2018학년도 추리논증 22번 문제 사례들을 통해 이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추리논증 22.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한다. 이 중 적극적으로 노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 나머지를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로 구분된다. 실업자에 대한 정의는 조사대상 1주일간에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실업자를 뺀 나머지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로 정의되는 '실업률'은,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의 상태를 나타

내는 대표적인 통계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단념한 ‘구직단념자’, 구직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더욱 많은 시간 동안 일하고 싶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원하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만 일하고 있는 ‘불완전취업자’ 등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업률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이용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 인구의 변화가 없는 경제에서 위 경제지표들의 상호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 기>

- ㄱ. 일자리가 증가함과 동시에 실업률이 상승할 수는 없다.
- ㄴ. 실업률과 고용률을 통해 취업자 중 불완전취업자의 비중을 알 수 있다.
- ㄷ. 구직단념자가 많아질수록 실업률은 하락하는 반면 고용률은 변화가 없다.
- ㄹ. 실업률 하락과 고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면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번 문제는 경제 관련 지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제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시문 안에서 모든 개념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시문은 일자리,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취업자,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며,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수험생은 이 정의와 관계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추론을 수행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의 정답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즉, 이 문제는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풀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제시문 내에 제공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LEET 문제였습니다.

이제 보기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 ㄱ. 일자리가 증가함과 동시에 실업률이 상승할 수는 없다.

수험생들은 오히려 ㄱ 선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제시문에서는 실업률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정의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업자는 줄어드나요? 이 부분이 오히려 배경지식보다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경제 문제라는 이유로 임의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취사선택했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정의는 조사대상 1주일간에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실업자를 뺀 나머지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정의한다.

실업자에 대한 정의 속에서, 일자리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실업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맘대로 했습니다. 배경지식에 따른 것이죠. 일자리는 늘어나도,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배경지식에 맡긴 것입니다. 주어진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판단을 위해 복잡한 경제학 이론이나 노동시장 이론을 알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시문에 주어진 "일자리", "취업자", "실업자" 개념 정의와 기본 상식 수준의 연결(사실 그냥 단어의 의미만 알면 충분했고 배경지식이라 말하기도 민망했습니다)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ㄱ은 틀린 선택지였습니다.

ㄴ. **실업률**과 **고용률**을 통해 취업자 중 불완전취업자의 비중을 알 수 있다.

ㄴ 선지에서도 사전에 불완전취업자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은 해당 개념의 표지를 제시문에서 가져야 했습니다. 제시문에서 불완전취업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지표들이 이들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서술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개념 속 변수와 관계 양상을 확인한다면, 정확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출제자들은 개념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문제화하기 위해 경제 개념을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ㄴ은 틀린 선택지였습니다.

ㄷ. 구직단념자가 많아질수록 실업률은 하락하는 반면 고용률은 변화가 없다.

ㄹ. 실업률 하락과 고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면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한다.

실제 시험에서는 ㄷ, ㄹ은 읽지 않아도 되는 선지였습니다. 아니, 읽지 않아야 하는 선지에 해당했습니다. ㄱ, ㄴ 선지가 형식적으로 틀린 것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배경지식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설명이 본문에서 이미 제시되었고 이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우선, ㄷ 선지의 경우 구

직단념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시문에서 설명되었습니다.

ㄹ 선지 역시 동일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참가율 역시 하락합니다. 이 관계도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시문에 제시된 정의만 가지고도, 자연스럽게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사이의 연관성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LEET 시험이 얼마나 제시문 속의 정보에 대한 정확한 습득과, 실행 능력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존의 경제학 지식이 있든 없든, 제시문에만 충실히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LEET의 기본 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CHAPTER

02

철학



The
LEET
BIBLE

“

철학 분야는
매년 언어이해 영역에서
1~2제시문 출제되는 소재이며,

추리논증 영역에서도
주어진 전제에 대한
'대응'을 묻는 문제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제 2 장

철학

The LEET BIBLE

1 철학 분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 철학, 모든 사고의 토대

철학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닙니다. 철학은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학문이자,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논리적 사고, 추상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창의성 등 현대적 지적 역량의 상당 부분은 철학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합니다.

LEET에서는 이런 철학에 대해서 단순히 어떠한 철학 사조 내지 입장 하나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간의 관계나 개념의 변화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철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교양을 넘어 실전적 사고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철학적 사유의 체계와 그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낯선 제시문을 읽더라도 논리의 구조를 파악하고 주어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철학은 무엇에 대해 다루는가. 거시적 차원의 구획

철학은 인류가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집약체입니다. 이 거대한 사고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철학은 네 가지 주요 주제로 구분되어 왔습니

다. 결국 차원의 구획을 해보자면, 바로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가치론입니다. 이들은 각각 독립된 탐구영역을 가지면서도,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인간 사유의 다양한 층위를 구성합니다.

(1) 형이상학 (Metaphysics)

형이상학은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하는 철학의 가장 근원적인 분야입니다. '메타'(meta)와 '피지카'(physika, 자연학)의 합성어로, '자연을 넘어서' 존재의 본질을 논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형이상학은 크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 무엇이 진정으로 존재하는가?
-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구조와 특성을 지니는가?
- 변화란 무엇이며, 변화와 정체성은 어떻게 양립하는가?
- 세계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대표적 논의

-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초월적 실재를 주장하며, 현상 세계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이 질료(hyle)와 형상(eidos)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고, 존재를 보다 내재적 방식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와 본질이 형이상학의 주요 주제가 되었으며, 근대 이후에는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이 존재론적 체계를 재구성했습니다.
- **형이상학의 현대적 논의**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자'와 구별되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분석철학에서는 존재의 언어적 표현과 지시의 문제가 중요해졌으며, 양상 논리학을 통해 '가능세계'의 개념이 발전했습니다. 또한 마음과 물질의 관계를 다루는 심신문제, 인과성의 본질, 시간과 공간의 실재성에 관한 논쟁도 형이상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LEET 관련성

철학제시문의 경우 존재 조건, 본질과 현상의 구분, 변화의 성격을 분석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차원의 구획이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제시문에서 '자아'의 지속성 문제나 '사회적 실재'의 성격이 논의될 경우, 이에 대한 개념적 속성들을 각기 다

른 차원에 구획하는 것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속성의 이해는 개념 간 관계 속에서 규정됩니다.

(2) 인식론(Epistemology)

인식론은 "우리는 어떻게 앎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지식의 본질, 기원, 범위, 정당화에 관한 탐구를 수행하는 철학의 분야입니다. 그리스어 'episteme(지식)'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인간의 인지 활동 자체를 철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인식론은 크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 지식의 정의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정당화된 참된 믿음'으로 정의)
- 지식을 얻는 원천은 무엇인가? (이성, 경험, 직관, 증언 등)
- 확실한 지식은 가능한가? 회의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우리의 인식 능력은 어떤 한계를 가지는가?

대표적 논의

- **합리론자들(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은 이성을 통해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확실성의 토대를 찾았습니다.
- **경험론자들(로크, 버클리, 흄)**은 모든 지식이 감각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특히 흄은 인과성에 대한 회의를 통해 형이상학적 주장들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하려 했으며, 인간의 인식이 감각 자료(현상)에만 국한될 뿐 '물자체'(noumena)는 알 수 없다는 초월적 관념론을 제시했습니다.
- **현대 인식론**에서는 '정당화' 개념을 중심으로 토대주의, 정합주의, 맥락주의 등 다양한 이론들이 발전했습니다. 또한 자연화된 인식론(퀸), 진화론적 인식론, 사회적 인식론 등이 등장하며 인식 주체를 사회적, 생물학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지식 생산의 정치적, 젠더적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LEET 관련성

인식론적 사고는 제시문의 주장이 어떤 근거에 기초하는지, 그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

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과학적 방법론, 사회과학의 객관성 문제, 역사적 사실의 해석 등에 관한 변수들과 연결하여, 결국 개념 간 관계, 입장 간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3) 논리학 (Logic)

논리학은 올바른 추론의 법칙과 원리를 연구하는 철학의 분야로, 타당한 논증의 형식과 구조를 분석합니다. 그리스어 'logos(이성, 말)'에서 유래한 이 학문은 철학적 탐구의 방법론적 토대이자 독자적인 연구 영역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논리학의 주요 관심사

- 논증의 타당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 어떤 추론 규칙들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 논리적 필연성과 우연성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논리적 모순과 역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대표적 발전과정

-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논"에서 삼단논법을 중심으로 한 형식논리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2천 년 이상 서양 논리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 근대에 들어 **라이프니츠**는 논리의 수학화를 시도했고, 19세기 말 프레게의 "개념 표기법"은 현대 기호논리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 원리"(Principia Mathematica)는 수학을 논리학에 환원하려는 논리주의 프로젝트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 **현대 논리학**은 고전 명제논리학과 1계 술어논리학을 기본으로 하여, 양상논리학, 직관주의 논리학, 다치논리학, 퍼지논리학 등 다양한 비고전 논리체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형식체계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컴퓨터 과학의 발전과 함께 계산가능성 이론, 알고리즘 복잡성 이론 등이 논리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했습니다.

논리학은 또한 철학의 다른 분야들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언어철학에서는 논리적 분석이 의미론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과학철학에서는 과학적 설명과 이론 구조의 논리적 재구성이 시도되었습니다. 윤리학에서는 규범적 명제들 간의 논리적 관계가 연구되었고,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비단조 논리, 디폴트 논리 등 새로운 추론 체계가 개발되었습니다.

LEET 관련성

논리학은 제시문의 논증 구조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제와 결론의 관계, 숨겨진 가정들,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능력은 LEET 추리논증에서 빈출하는 핵심 유형입니다.

(4) 가치론 (Axiology)

가치론은 가치의 본질, 유형, 기준에 관한 철학적 탐구로, 윤리학과 미학을 포괄하는 넓은 영역입니다. 그리스어 'axios(가치 있는)'에서 유래한 이 분야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 평가 활동의 근본 원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가치론의 핵심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리학의 주요 관심사

- 가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 가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주관적 구성물인가?
- 다양한 가치들 사이의 위계와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가?

대표적 발전과정

- **윤리학(Ethics)**은 가치론의 핵심 분야로, 선과 악, 옳고 그름에 관한 탐구입니다.
- **덕 윤리학(아리스토텔레스)**은 덕스러운 성품의 함양을 강조합니다.
- **의무론(칸트)**은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의 원칙을 중시합니다.
- **결과주의(벤담, 밀)**는 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효용을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도덕적 지식의 가능성에 관한 탐구입니다.
- **미학(Aesthetics)**은 아름다움, 예술, 취미에 관한 철학적 탐구입니다.
 - 미의 본질에 관한 논의. 객관적 속성인가, 주관적 경험인가?
 - 예술의 정의와 가치. 재현, 표현, 형식, 제도적 관점 등 다양한 이론
 - 미적 경험의 특성. 무관심성, 몰입, 거리두기 등의 개념
 - 예술비평의 기준과 방법론 문제

현대 가치론에서는 가치의 다원성과 상대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맥킨타이어, 테일러

등은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가치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성을 강조했고, 롤스와 하버마스는 정의와 담론윤리학을 통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규범적 합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환경윤리학, 생명윤리학, 정보윤리학 등 응용윤리학 분야는 현대 기술문명이 제기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가치론적 사유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LEET 관련성

가치론적 사고는 제시문에 내포된 가치 판단을 분석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입장을 구획하라는 식으로 제시문이 구성됩니다. 특히 정의, 평등, 자유, 권리, 책임 등의 개념이 등장하는 제시문에서 각 가치론적 관점의 구획, 즉 차원의 구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결

네 가지 핵심 주제로 구분되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리적 판단의 객관성 문제는 인식론과 형이상학의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논리학은 모든 철학적 사고의 방법론적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통합적 성격이 철학의 본질적 특성이며, 철학이 전문화된 개별 학문들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칸트의 "비판서", 헤겔의 "정신현상학" 등 위대한 철학적 텍스트들은 이러한 네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체계적 사유의 사례들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푸코, 하버마스 등이 언어, 존재, 신체, 권력, 소통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철학의 다양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사유를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의 네 가지 핵심 주제는 인간 이성의 다양한 관심사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이론적 구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철학은 이성의 통일성과 총체성을 지향합니다. 결국 하나의 상위 차원의 공통 전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철학 입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1

서양철학

1 고대 그리스 철학

1. 플라톤 (Plato, BC 427-347)

플라톤은 서양 형이상학의 초석을 놓은 철학자로, 그의 '이데아론'은 형이상학적 사유의 원형을 제시합니다.

용어설명 CORNER 형이상학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는 LEET에서도 기본 배경지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념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11학년도 언어이해 6~8번, 추리논증 20번 등)

형이상학(形而上學)	형이하학(形而下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형체(形)의 위(上)"라는 뜻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원리,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존재의 근원, 도(道), 천리(天理) 등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실재를 다룹니다. 예시 : 도가사상에서의 "도(道)", 성리학에서의 "리(理)", 서양철학에서의 "존재론, 신학, 존재의 본질".	문자 그대로 "형체의 아래"라는 뜻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 현상, 구체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치, 경제, 의례, 기술, 군사 등 실천적이고 경험 가능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예시 : 예(禮), 음악, 정치제도, 농업, 의학, 공학 등 구체적 기술 분야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계는 단지 진정한 실재를 모방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본래의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실재인 '이데아(Idea)의 세계'로부터 파생된 불완전한 복제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플라톤의 형이상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플라톤의 형이상학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이원론적 세계관. 현상과 이데아의 분리

플라톤은 실재를 두 개의 차원, 즉 '영원불변하고 완전한 '이데아 세계'와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소멸하는 '현상 세계'로 구분합니다.

실재	
이데아 세계	현상 세계
영원불변하고 완전한 차원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소멸하는 차원

"이데아 세계" 차원은 감각이 아니라 이성(logos)으로만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모든 존재의 본질과 완전한 형상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정의', '선', '아름다움'과 같은 추상적 개념뿐 아니라, '책', '나무', '말' 같은 구체적 대상의 이상적인 원형도 포함됩니다.

"현상 세계" 차원은 우리가 감각으로 접하는 세상으로,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종류의 의자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의자는 '의자다움', 즉 '의자의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실재는 오직 '의자의 이데아'이며, 개별적인 의자는 그 실재를 모방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이데아의 우위성과 참여 이론

플라톤 철학의 중심은 이데아의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즉 플라톤은 두 차원 간 "비교"라는 관계를 추가했습니다. 개별적인 사물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물이 속한 이데아에 '참여(participation)'함으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물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 사물이 '아름다움 그 자체', 즉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일정 정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라는 보다 높은 실재로부터 부여된 성질입니다.

이러한 참여 개념은 단순한 비유나 수사가 아니라(not A), 존재론적 설명(but B)입니다. 즉,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데아와의 연관에 있으며, 이는 플라톤이 모든 존재를 '이데아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상기설(anamnesis) : 앎은 기억이다

플라톤의 인식론은 그의 형이상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영

혼은 태어나기 전 이데아 세계에 머물며 모든 진리를 보았고, 이 지식을 육체에 깃들며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앎'이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잊었던 진리를 되살리는 '상기(remembrance)'의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메논』에서 소크라테스가 무지한 노예 소년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장면은, 이성이 스스로를 훈련할 경우,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데아	
영혼	육체
이데아로 접촉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	~이데아로 접촉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

이러한 상기설은 인간의 영혼이 단순히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이데아와 접촉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전제하며, 교육의 목적은 새로운 사실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본래 가졌던 진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임을 뜻합니다.

(4) '선의 이데아',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원

플라톤의 이데아들 중에서도 가장 위에 군림하는 이데아, 즉 모든 존재와 인식 가능성의 근원으로 자리 잡는 것이 바로 '선의 이데아(the Idea of the Good)'입니다. 이데아들 가운데 이데아라는 상위 차원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의 이데아'는 다른 모든 이데아의 존재 근거가 되며, 그것이 없이는 어떤 이데아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정의', '아름다움', '지혜' 등의 이데아는 각기 자율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들이 모두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데아 세계는 단순한 존재의 목록이 아니라, 위계적 구조를 가지며, '선의 이데아'가 그 정상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모든 사물을 비추어 보이게 하듯, '선'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궁극 원리로 작동합니다.

(5) 동굴의 비유. 인식의 전환과 형이상학의 비유화

플라톤의 『국가(Republic)』에 등장하는 '동굴의 비유'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극적으로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동굴 속 죄수들은 평생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실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자들은 동굴 밖에 있는 사물들이 햇빛에 의해 투영된 단순한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한 죄수가 해방되어 동굴 밖의 세계를 보고 태양 아래의 진짜 사물들을 인식하게 되자, 그는 처음으로 '실재'의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차원의 구획을 함축합니다.

동굴 속 세계 = 현상 세계 그림자 = 감각적 인식	동굴 밖 세계 = 이데아 세계 태양 = 선의 이데아
동굴 밖으로 나아가는 과정 = 철학적 삶의 여정	

이때, 해방된 죄수는 철학자로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곧바로 철학적 삶의 여정이라는 관계가 설정됩니다.

결국, 진정한 삶이란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 이성에 의해 이데아를 인식하는 과정이며, 철학자는 동굴 밖을 경험한 자로서, 다시 동굴로 돌아와 다른 이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윤리적 요청까지 동반됩니다.

이처럼 플라톤의 형이상학은 단지 세계를 이원적으로 나눈 추상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 인식, 교육, 윤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철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데아론은 이후 서양철학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의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2013학년도 언어이해 30~32번 사례

2013학년도 LEET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인식론'의 기본 개념을 다룬 철학 제시문이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지문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둘러싼 전통적인 철학적 논의를 기반으로, 인식의 한계와 오류 가능성, 그리고 참된 인식의 기준을 묻고 있었습니다.

항목	분석 내용
주제	인간의 인식 능력과 그 한계에 대한 철학적 논의
핵심 개념	- 감각과 이성의 역할 - 경험적 인식과 선험적 인식 - 인식의 신뢰성 문제 - 인식론의 전통적 관점
논지 전개	1. 인식의 출발점으로서 감각 경험의 중요성 언급 2. 경험의 불완전성 및 오류 가능성 지적 3. 이성적 판단과 선험적 기준의 필요성 강조